

<2012년 7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도자들은 늘 새롭게 해야 된다.
2. 새로운 역사 도전이다.
3.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고 보여 주고 새롭게 하게 하여라.
4. 기도에 권태가 오면, 행하는 기도를 하여라. 대화 기도를 하여라.
5.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우면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하여라.
6. 나이 먹고 늙은 기성인 같은 자들만 쳐다보지 말고, 새롭게 전도하여 그들을 길러라. 그래야 모두 불붙는다.
7. 실상 이 시대는 섭리사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전하여라.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르쳐 보아라. 그러면 가문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흡수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8. 1년에 수십 명씩은 전도해야 된다. 전능자 성자와 함께 하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하느냐.
9. 좋은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을 만들어 줘도 집에 쌓아 놓고 마음에 쌓아 놓고 노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10. 기성에 가 보아라. 할 일이 없어 손톱 밑의 때를 파낸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11. 요즘은 젊은이들도 할 일이 없으면 침을 발라 때 밀고 있다.

12. 성자 주님은 이 꼴 저 꼴 다 보고 떠나가셔서 다른 자를 불러 새롭게 신부 삼고 가신다. 예술단과 신앙 스타들은 말씀을 배우고 외쳐라. 그러면 주님께서 상당한 값을 준다고 하셨다.

13. 사랑이 좋아도 힘이 있어야 사랑한다. 힘은 말씀에서 온다. 성령 역사에서 온다. 증거하고 전하는 데서 온다.

14. 남녀들이 힘이 없으니 껴안고 가다가 팔을 풀어 손잡고 간다. 그러다 힘이 없으니 손을 놓고 걸어간다. 그러다 힘이 없으니 주저앉아서 잔다.

15. 힘 없으니 백마를 갖다 놓고 차를 갖다 놓아도 못 탄다.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힘이 바닥나기 전에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16. 새로운 것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성자 주님은 각 개인에게 줄 것을 만 가지나 가지고 계신다.

17. 이성 사랑과 세상 사랑이 좋아서 성자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니, 실컷 사랑하다가 힘 빠지고 지겹고 권태가 와서 헤어지고 세상까지 싫어하며 눈도 뜨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산다. 성자 주님을 버리면 그 꼴 된다. 지금 성자 주님이 떠나실 때다. 알겠느냐.

1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담장 너머 영계를 쳐다보니, 인생 살기 지겹고 재미없어서 마귀 운동회와 마귀 연극을 보러 다닌다.

19. 섭리사를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다니다가 따끔한 지옥 불에 수시로 스치니, 그 따끔한 맛을 보고서 혀를 내두른다. 그러다 지옥 불에 들어가면 그 혀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20. 섭리역사는 성자 분체를 따라서 지금까지 새롭게 역사를 펴 왔다. 섭리역사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늘 희망에 불타는 역사다.

21. 성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을 다 하고 사랑할 것을 다 하면 끝났으니 간다고 하신다.

22.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랑을 중심한 프로그램을 하면 하루 종일 안 가신다.

23. 성자 주님을 옆에 놓고도 말 안 하면 가신다.

24. 연극 다 끝나면 관객은 떠난다.

25. 세상은 보여 주기다. 해 보기다. 만들어 보기다. 고로 ‘거리’를 만들어 주이라.

26. 연애기 끝나면 아기 낳기다.

27. 과일나무는 열매를 보고 가꾸기다.

28. 일이 지겹다고 하지 말아라. 일 없으면 10배 더 지겹다.

29. 감옥 생활은 지옥이지만, 거기서 천국 생활 하면 천국이다. 마음먹고 행하기 나름이다.